

## 오늘부터 전세피해 상담 버스 운영 개시

- 심리 상담, 법률 상담 및 피해지원 프로그램까지 원스톱으로 안내
- 복지부의 복지 및 심리지원 서비스와 연계하여 협력 지원

- 국토교통부(장관 원희룡)는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에게 보다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지도록 ‘찾아가는 상담 버스’를 운영한다.
  - 이번 찾아가는 상담 버스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기존 지원방안을 미처 알지 못해 활용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, 지자체, 보건복지부 및 전세피해지원센터 등과 협력하여 운영한다.
- 대규모 집단 피해가 발생한 인천 미추홀구 차원에서 오늘부터 심리상담이 가능한 버스를 운영하기 시작했고,
  -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총괄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내일부터 심리 상담은 물론 법률 상담 및 피해지원 프로그램까지 원스톱으로 안내할 수 있는 버스를 운영한다.
  - 아울러, 국토부는 약 200명 규모의 법률·심리 상담 전문인력을 확충하고, 지자체와 협력하여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지역에 현장 부스도 운영할 계획이다.
- 한편, 보건복지부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생계지원을 위한 복지 서비스와 심리지원 서비스의 현장 이행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.
- 원희룡 장관은 “찾아가는 상담 서비스를 통해 전세피해 임차인들이 조속히 어두운 터널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”고 말했다.

담당 부서	주택정책관	책임자	과 장	이장원 (044-201-3321)
	주택임차인보호과	담당자	사무관	이혜신 (044-201-4423)